

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

관세청

Korea Customs Service

목 차

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

①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('26. 6. 26. 시행 예정)	p.1
②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('26. 6. 26. 시행 예정)	p.2
③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('26.1.1. 시행)	p.3
④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 3년 연장('26. 1. 1. 시행)	p.4
⑤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('26. 1. 1. 시행)	p.5

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

⑥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('26. 1. 1. 시행)	p.6
⑦ ACVA 결정 물품 관세조사(과세가격 분야) 제외('26. 1. 1. 시행)	p.7
⑧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제출을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('26. 4월 시행 예정)	p.8
⑨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('26. 1. 1. 시행)	p.9
⑩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기간 연장 대상 확대('26. 1. 6. 시행)	p.10
⑪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('26. 1. 1. 시행)	p.11

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

⑫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('26. 1. 1. 시행)	p.12
⑬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 개선('26. 1. 1. 시행)	p.13
⑭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근거 명확화('26. 1. 1. 시행)	p.14

1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

(전자상거래통관과, 042-481-7843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	☐ 간이수출신고 허용 <u>기준금액 상향</u>
○ 수출가격 400만원(FOB 기준) 이하	○ 수출가격 <u>500만원</u> (FOB 기준) 이하

< 사 례 >

개정전	• S사의 K-팝 한정판 프리미엄 굿즈 수출가격은 450만원 상당으로 간소한 간이수출신고 대신 일반수출신고를 하게 되어 S사의 수출 관련 업무량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됨
개정후	•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S사 상품 해외 판매 시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수출 관련 업무량 감소 및 비용 절감

☐ 【기대효과】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고가·프리미엄 상품의 수출신고 편의성 제고, 신고 수수료 절감

☐ 【시행일】 '26. 6. 26. 시행 예정(「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」 제43조 개정)

2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

(전자상거래통관과, 042-481-7843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☐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	☐ 풀필먼트 수출 <u>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</u> ☐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<u>90일</u> 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

< 사 례 >

개정전	- 풀필먼트 방식으로 수출 판매하는 A사의 물품은 다양한 거래조건*으로 판매되어 회계처리에 장기간 소요됨. A사가 판매대금 확정일·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확정가격을 신고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* 물품대금 지급 시 할인을 적용 및 누적 적립금 사용
개정후	풀필먼트 수출 시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판매금액 확정일·입금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되어 A사의 확정가격 신고 부담이 경감되고, 실제 공급한 수출가격 신고로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게 됨

☐ **【기대효과】** 풀필먼트 수출시 확정가격 신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,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로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사전 예방

☐ **【시행일】** '26. 6. 26. 시행 예정(「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」 제42조 개정)

③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

(보세산업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혼용작업 신청기한 ☐ 내·외국물품 혼용작업 전까지	☐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 ☐ 혼용작업 승인 신청을 <u>수입신고 전까지</u> 기한 확대
☐ 원료과세 적용 신청 기한 ☐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	☐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 ☐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<u>수입신고 전까지</u> 기한 확대

< 사 례 >

개정전	외국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보세공장 D사는 혼용승인·원료과세 사전신청을 누락하여 추가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
개정후	신청기한이 수입신고 전으로 확대됨으로써 단순 사전승인 누락 실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D사의 조세부담 완화

☐ **【기대효과】** 단순 사전 승인 누락에 따른 과도한 추징을 방지하고, 유리한 방식의 과세로 첨단·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

☐ **【시행일】** '26. 1. 1. 시행(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, 「관세법」 제188조, 189조 개정)

5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○ 제조·수리공장의 지정기간 - 3년 범위 내	☐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○ 제조·수리공장의 지정기간 - <u>10년</u> 범위 내

☐ 【기대효과】 반도체 및 항공기 제조·수리 기업의 투자안정성 제고

☐ 【시행일】 '26. 1. 1. 시행(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, 「관세법」 제89조제3항 개정)

⑥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

(세원심사과, 042-481-764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☐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 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 <신설>	☐ <u>감면 사유 확대</u> ☐ (현행과 같음) ☐ <u>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신고(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이나 동일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)</u>

< 사 례 >

개정전	A사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였으나 긴급한 사정으로 우선 수입신고, 수입신고 후 고세율의 HS코드 품목으로 사전심사 결정되어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함
개정후	A사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였으나 긴급한 사정으로 우선 수입신고, 수입신고 후 고세율의 HS코드로 사전심사 결정되어도 부족세액을 2개월 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함

☐ **【기대효과】** 납세자 편의 증진,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로 HS 불확실성 해소 등

☐ **【시행일】** '26. 1. 1.시행(이 법 시행 전에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시행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, 「관세법」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)

7 ACVA 결정 물품 관세조사(과세가격 분야) 제외

(심사정책과, 042-481-776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특수관계 사전심사(ACVA) 결정 물품 관세조사 가능 ○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의 변경 여부 ○ 중요한 부분 고의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 여부 ○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	☐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 ○ 과세가격 이외 분야(품목분류, 외환 거래, 수입요건 등) 가능

< 사 례 >

개정전	• 세관은 A사에 대한 관세조사 시 이미 과세가격 결정을 받은 특수관계 사전심사(ACVA) 결정 물품의 과세가격 자료를 제출받아 관세조사 가능
개정후	• 세관은 A사에 대한 관세조사 시 특수관계 사전심사(ACVA) 결정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는 관세조사 할 수 없음

- ☐ 【기대효과】 납세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성실신고 문화 확산
- ☐ 【시행일】 '26. 1. 1. 시행(「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제9조 개정)

⑧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제출을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

(데이터담당관실, 042-481-777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중소기업확인서 직접 제출 ☐ 관세청-중소벤처기업부간 시스템과 데이터 연동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간소화 ☐ 수출입기업이 수출환급 등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직접 제출	☐ <u>세관 담당자가 중소기업 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 자동 확인</u>

< 사 례 >

변경 전	• A사는 수출환급 등 중소기업 우대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*를 세관 방문 · 우편 ·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함 *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·발급 (유효기간 1년)
변경 후	• A사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세관담당자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 A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함

☐ 【기대효과】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행정 부담 경감하고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연동으로 증명서의 신뢰도 확보

☐ 【시행일】 '26. 4월 시행 예정

9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

(기업심사과, 042-481-76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○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대상, 조사 사유 등 통지 ○ <신설>	☐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 ○ <u>조사 시작 20일 전 조사대상, 조사 사유 등 통지</u> ○ 불복 청구 등의 <u>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</u>의 경우에는 <u>7일 전</u> 통지

☐ 【기대효과】 사전통지 기간 연장으로 기업의 관세조사 준비 기간 확보 및 재조사 사전통지 기간 명확화

☐ 【시행일】 '26. 1. 1. 시행 (「관세법」 제114조제1항)

10 체약상대국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기간 연장 대상 확대

(자유무역협정집행과, 042-481-323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기간 연장(6개월 범위) ○ (사유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, 불복절차 진행, 관세당국,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 등으로 회신기간내 결과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 ○ (대상) EFTA·EU·페루·미국·튀르키예·콜롬비아·베트남·중국·중미·영국과의 협정	☐ 체약상대국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기간 연장(6개월 범위) 대상 확대 (좌 동)
<신 설>	○ (대상 추가) 아세안·인도·호주·인도네시아·이스라엘·RCEP·캄보디아·필리핀과의 협정

< 사 례 >

개정전	• 서울세관이 필리핀 관세당국에 요청한 수입물품의 원산지확인요청에 대하여 필리핀 관세당국이 자연재해를 이유로 회신기간내 결과 회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
개정후	• 자연재해로 회신기간 내 결과회신이 어려운 경우 필리핀 관세당국은 서울세관에 6개월 이내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, 연장된 기간 내 원산지가 충족한다는 결과를 회신한다면 서울세관의 원산지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음

☐ **【기대효과】**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협정 국가를 추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익 보호

☐ **【시행일】** '26. 1. 6. 시행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개정)

11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

(전자상거래통관과, 042-481-7630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부호의 관리 ○ (신청유형) 신규, 변경(정보, 부호), 사용정지 ○ (유효기간) 없음	☐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, 미갱신 시 처리사항 신설 ○ (신청유형) 신규, 변경(정보, 부호), 사용정지, <u>갱신</u>, <u>해지</u> ○ (유효기간) <u>1년</u>

< 사 례 >

개정전	• A는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유효기간 제한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가능
개정후	• A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년마다 갱신하면서 자신의 발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현행화하게 됨

☐ 【기대효과】 수입자 정보 현행화와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 기여

☐ 【시행일】 '26. 1. 1. 시행 (「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·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6조 개정)

12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

(관세국경감시과, 042-481-791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보세운송시 운송수단 ☐ 운송수단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세 운송(위반시 과태료) * 운송수단 미신고시 처벌 불가	☐ <u>운송수단 신고의무 신설</u> ☐ <u>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세 운송(위반시 과태료)</u>

< 사 례 >

개정전	• A사는 보세운송 신고 후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 하고 보세운송을 하였으나, 운송수단 허위신고로 처벌받지 아니함
개정후	• B사는 보세운송 신고 후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 하고 보세운송을 하여 운송차량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음

☐ 【기대효과】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(차량)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여
밀수출입 등 통관질서 교란행위 방지

☐ 【시행일】 '26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16조 개정)

13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 개선

(조사총괄과, 042-481-795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요건(제19조) ○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 수령 ○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 제공	☐ <u>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요건 개선</u> ○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 수령 ○ <u><삭제></u>

＜ 사 례 ＞

개정전	• 화주로부터 관세 등을 수령한 구매대행업자 A는 해외 판매자가 과세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제공하여 저가신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함
개정후	• 구매대행업자 A가 관세 등을 화주로부터 미리 수령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 A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함

- ☐ 【기대효과】 불법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을 저가로 허위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를 억제하고, 부당하게 관세 등 부족분을 화주가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
- ☐ 【시행일】 '26. 1. 1. 시행(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, 「관세법」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개정)

14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근거 명확화

(관세국경감시과, 042-481-783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세관공무원의 물품 등 검사 권한 ○ 관세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물품·운송수단·장치장소 및 관계장부·서류 검사 가능	□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근거 마련 ○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○ 마약류 등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<u>검색장비를 사용할 수 있</u> <u>도록 하고, 마약류 등의 은닉이</u> <u>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</u> <u>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</u> <u>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</u> <u>검색을 할 수 있음</u>

< 사 례 >

개정전	• 외국에서 입국한 여행자의 옷 안에 은닉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측수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신변검색을 거부함
개정후	• 여행자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 근거 고지 후 마약류 등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 및 신체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여행자의 검사거부를 방지할 수 있게 됨

□ **【기대효과】** 신변은닉이 용이한 마약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한
관세국경단계 적발 및 효과적인 차단 가능

□ **【시행일】** '26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